



196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까지 한국 대중음악에 댄스를 기반으로 하는 퍼포먼스의 시대를 안겨준 스타들. 추억과 새로운 감성으로 다시 돌아왔다.

스포츠동아DB

원조 아이돌·1세대 비보이... “그시절 10대들 ‘뽕’ 갔지”

(소방차)

(현진영)

1970년대 금기 깬 김추자·바니걸스
파격적 의상과 댄스로 도발적 이미지

1980년대 원조 아이돌 소방차 탄생
격렬한 퍼포먼스로 10대 감성 자극

1990년대 시대 앞서간 춤꾼 현진영
뉴 잭 스윙과 힙합 섞인 멜로디 전율

최근 새롭게 시선을 모으는 ‘탑골’의 스타들은 가창력과 함께 현란한 퍼포먼스와 무대매너를 과시한 이들이다. 질은 감성을 담은 비교적 느린 템포의 노래와 무대보다는 경쾌한 멜로디와 리듬의 곡에 어우러지는 ‘불거리’로서 퍼포먼스가 더 빨리 대중의 시선을 빨아들인다는 점에서 이들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엿보게 한다. 1950년대 이후 미8군 무대를 배경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1960년대까지 가요계를 주도한 일군의 무리들로부터 힙합과 테크노 등을 거쳐 주로 10대들에게 소구해온 ‘아이돌 군무’에 이르기까지 절로 몸을 흔들게 하는 격렬한 리듬과 멜로디, 그에 얽히는 다채로운 가수들의 댄스 퍼포먼스야말로 시대를 읽는 또 다른 키워드가 된다.

●김추자·남진·바니걸스 그리고 이은하...금기의 시대를 넘어(1960년대 말~1970년대)

1969년 신중현이 발굴한 김추자는 여전히 ‘한국 최고의 섹시가수’라는 별칭으로 불린다. 표현과 창작의 자유로움이 날개를 펴지 못할 때 ‘늦기 전에’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와 함께 무대에 나선 김추자는 굴곡진 몸매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의상과 호느적거리면서도 현란한 무대매너로 남성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허스키한 목소리에 육감적 감성의 보컬은 ‘획일적 반듯함’만을 강요했던 시대적 분위기를 대적하며 ‘만들 강요했던 시대적 분위기를 도발했다. 결국 ‘거짓말이야’ 등 적지 않은 노래와 무대가 금지 당했다.

그 대적점에서 남진은 여성 팬텀을 물고 다녔고, ‘오빠부대’의 원조격으로 불린다. 유복한 집안 출신의 잘 생긴 외모, 세련되면서도 남성적인 목소리가 힘이 있었다. 트로트를 기반으로 이를 변주한 경쾌한 리듬에 다리를 흔들어대는 모습 그리고 실제로 그것 그대로 ‘벤치마킹’한 엘비스 프레슬리의 의상 등은 퍼포먼스형 남성가수의 시대를 본격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고정숙·재숙 쌍둥이 자매의 듀오 바니걸스(토끼소녀)는 1960년대 펠시스터즈의 뒤를 이어 ‘걸그룹’의 첫 머리에 등장할 만하

다. 귀여운 외모와 뛰어난 화음으로 무대를 장악한 이들은 과감한 노출 의상으로도 시선을 모았다. 현란하거나 화려한 퍼포먼스보다는 리듬과 멜로디에 어울리는 살랑살랑한 몸놀림이 어우러지며 강한 개성을 구축했다.

1978년 노래 ‘밤차’는 새로운 퍼포먼스형 가수의 출발을 알렸다. 일명 ‘찌리춤’으로 불리는 디스코풍의 리듬과 몸짓 때문이었다. 이은하, 1976년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과 ‘봄비’ 등 발라드와 솔 분위기의 보컬로 실력을 발휘했지만, 지금까지도 그를 상징하는 건 역시 ‘밤차’와 디스코이다. 그의 무대는 일약 새로운 시대가 활짝 열렸음을 알리는 것이기도 했다.

●희자매·소방차...퍼포먼스의 맹아(1980년대)

1981년 서울 여의도광장(현 여의도공원)에서 ‘민족문화 계승과 젊음의 축제’를 표방한 대규모 관제 행사 ‘국풍81’이 열렸다. 1979년 12·12쿠데타로부터 1980년 5월 광주를 짓밟고 권력을 잡은 신군부가 대학가의 저항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였다. 어쨌거나 많은 대학생들이 참여했고, 이는 이후 KBS 2TV ‘젊음의 행진’과 MBC ‘영11’이라는 무대로 이어졌다. ‘짜꿍’ 혹은 ‘영스타즈’ 등

코러스와 군무를 내세운 두 무대는 소방차 등 새로운 스타들을 탄생시켰다.

‘히슬’로부터 ‘브레이크댄스’ 등 1970년대 말 미국에서 유행한 흐름을 이어받은 당대 스타들은 비트에 몸을 신는 자유분방한 춤으로 다가왔다. 소방차는 ‘뽕뽕링’ 등 더욱 격렬하고 현란한 몸짓으로 무장해 10대들의 감성을 자극하며 인기를 모았다.

이들이 남성 아이돌의 출발처럼 인식되고 있다면, 1978년 김재희·김효순·이영숙으로 출발해 인순이가 합류한 그룹 희자매는 늘씬한 여성그룹의 이미지를 강화시켰다. 특히 인순이는 1983년 백댄서팀 ‘인순이와 리듬터치’를 통해 ‘밤이면 밤마다’로 이은하가 이끈 디스코 열풍을 이어갔다. ‘인순이와 리듬터치’에서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의 이주노, R’ef의 박철우, 김완선 등이 활약한 사실은 댄스음악의 맹아가 된 시대였음을 확인시킨다.

●그리고 현진영...만개한 댄스음악 시대(1990년대)

‘안개 빛~ 조명은~ 흐트러진 내 몸을 감싸고~.’ 후드 티로 얼굴 전체를 가린 현진영이 단전에서부터 끌어올린 호흡으로 노래한다. 여기에 서구의 뉴 잭 스윙과 힙합

을 섞은 멜로디가 더해지면 온몸에 전율이 흐른다.

1992년 ‘흐린 기억 속의 그대’를 통해 현진영이라는 이름 석 자와 ‘불멸의 명곡’이 만들어졌다. 그는 당시 활동했던 가수들과 비교해 날렵하지 않은 몸집과 키를 가졌지만, 외형적인 모습에서 풍겨 나오는 포스가 강렬했다. 서울 이태원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춤꾼’으로 활동했던 그는 한국 ‘비보이 1세대’다. 박남정과 이주노의 후배로도 유명한 그는 1988년 SM엔터테인먼트의 이수만에게 발탁돼 데뷔했고, ‘힙합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다.

흥미로운 사실도 있다. 1990년 ‘현진영과 와와’의 이름으로 그와 함께 한 인물들 역시 힙합과 댄스 장르를 휘어잡은 가수들이다. ‘와와’ 1기는 클론의 구준엽과 강원래, 2기는 듀스의 김성재와 이현도이며 지누션의 선이 3기 출신이다. 현진영이 열어젖힌 댄스음악과 춤의 인기는 서태지와아이들이 ‘난 알아요’로 한층 더 끌어올리며 댄스 장르의 시대가 만개했음을 알렸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이정연 기자 annoy@donga.com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롯데그룹 임직원 인동

故 신격호 롯데그룹 창업주의 상례에 정중한 조의를 베풀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부인 신동주 하츠코
아들 신동주 신동빈
딸 신영자 신유미
며느리 조은주 시계미쓰 마나미 배상

2020년 1월 23일 목요일

우선 지면을 빌려서나마 머리 숙여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故 신격호 롯데그룹 창업주의 상사시에 깊은 애도와 조의를 베풀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사를 드립니다. 모든 분들을 일일이 찾아뵙는 것이 도리어 오나 아직 황망중에 있어

인사 말씀

연예뉴스 HOT 4

지니뮤직, 트로트 차트 새롭게 추가

지니뮤직이 최근 트로트 열풍을 반영해 트로트 차트를 새롭게 추가한다. 지니뮤직 조훈 대표는 22일 “트로트를 향한 고객의 호응을 서비스에 민첩하게 반영해 트로트 일간 차트를 비롯해 지니 매거진을 통해 다양한 트로트 음원을 소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차트는 일간 단위로 100위권까지 공개한다. 지니뮤직 측은 “2019년 트로트 장르의 스트리밍 이용이 전년 대비 74% 증가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방탄소년단, 4월 서울 시작으로 월드투어



세계적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4월 새로운 월드투어를 시작한다.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22일 방탄소년단이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월드투어 ‘BTS 맵 오브 더 솔 투어’를 펼친다고 밝혔다. 서울 공연은 4월11일과 12일에 이어 18일과 1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열린다. 뒤이어 미국, 캐나다, 일본, 영국, 독일, 스페인 등 해외 17개 도시에서 37회 공연한다. 방탄소년단은 2월21일 정규 4집 발표를 앞두고 있다.

엑스원 팬들, CJ ENM 앞에서 항의 시위

CJ ENM이 보유한 케이블채널 엠넷의 ‘프로듀스X 101’로 데뷔한 그룹 엑스원이 시청자 문자투표 조작 파문으로 해체된 가운데 팬들이 이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엑스원의 800여 팬들은 22일 서울 상암동 CJ ENM 앞에서 “CJ ENM이 엑스원 해체에 대한 책임과 보상을 회피한 채 문화산업을 지속해 케이팝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31일까지 팀 활동을 원하는 멤버들로 구성된 새 그룹 결성 의사를 표명하라”고 촉구했다.

길, 채널A ‘아이콘택트’로 3년 만에 활동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가수 겸 방송인 길이가 채널A ‘아이콘택트’를 통해 3년 만에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한다. 채널A 관계자는 22일 “길이 최근 촬영을 마쳤다. 27일 방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이콘택트’는 사연을 가진 출연자가 가족 및 지인과 눈 맞추며 소통하는 프로그램이다. 길은 2004년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후 2014년 4월과 2017년 6월 잇따라 음주단속에 적발돼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했다.

※실 연휴 24일(금)부터 27일(월)까지 신문 쉽니다. 인터넷 뉴스 sportsdonga.com 서비스는 계속됩니다.